

조 사 자 료

2002 - 020

2001년, 세계 메이저 시멘트 기업의 업적현황
- LAFARGE -

2002. 9

한 국 양 회 공 업 협 회

2001년, 세계 메이저 시멘트 기업의 업적현황

I. LAFARGE

1. 개 요

○ LAFARGE 2001 현황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- 시멘트 출하 | 87.6백만톤 |
| - 시멘트 생산능력 | 135.5백만톤 |
| - 레미콘 | 32.4백만m ³ |
| - 골재 | 208.8백만톤 |
| - 종업원수 | 82,892명 |

○ Lafarge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

| |
|---------------------|
| - 시멘트 : 43.8% |
| - 골재 및 콘크리트 : 35.1% |
| - 지붕 : 11.6% |
| - 석고 : 7.8% |
| - 특수 및 기타 : 1.7% |

2002, LAFARGE 실적

(단위 : 백만유로)

| | 매출액 | 영업이익 | 증가율(%) | 생산능력(백만톤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유 럽 | 6,004 | | | 52.7 |
| 북아메리카 | 4,431 | | | 19.1 |
| 라틴아메리카&카리브해 | 760 | | | 10.5 |
| 아시아-태평양 | 1,101 | | | 31.4 |
| 동북아프리카 | 637 | | | 11.9 |
| 타지역아프리카 | 765 | | | 9.9 |
| 전 체 | 13,968 | 2,993 | 11.1 | 135.5 |
| 감가상각비 | | - 928 | 17.8 | |
| 매매이익 | | 2,065 | 8.4 | |
| 순이자 | | - 595 | 21.7 | |
| 운영이익 | | 1,470 | 3.8 | |
| 예외조항 | | 106 | | |
| 세전이익 | | 1,576 | 9.6 | |
| 법인세 | | - 414 | 9.2 | |
| 주식분할상환금 | | - 142 | 18.3 | |
| 순이익 | | 750 | 3.3 | |

○ **Blue Circle** 인수(2001. 6)를 비롯한 Lafarge의 두드러진 도약

- 지난해 매출, 12.1% 증가한 13,398백만 유로
 - 시멘트 운영체들은 35% 증가한 6,746백만 유로 기록
- 시멘트와 크링카 판매, 29.6% 증가한 87.6백만톤
 - 유럽연합 및 동유럽에서 최대 증가
- 레미콘 출하, 11.7% 증가한 32.4백만m³ 기록
- 영업이익은 11.1% 늘어난 2,993백만 유로였고, 세전운영이익은 3.8% 증가하여 1,470백만 유로로 향상

○ **Blue Circle 인수 등 Lafarge의 자본투자**

- 2001년, 기존 사업의 자본투자에 1,455백만 유로 사용
- 새로운 인수 및 전략적 투자에 11.3% 증가한 4,618백만 유로
- Blue Circle 인수에 3,804백만 유로 투자
 - Blue Circle의 총인수비용은 순부채 포함 7,416백만 유로
 - 1,015백만 유로는 12월 말까지 자산매각으로 확보
- 반면에 부동산 매각으로 투자재원 1,537백만 유로 확보

○ **자기자본 부채비율 수준 증가**

- 무형자산 8,199백만 유로가 포함된 총 10,596백만 유로의 주주 자산 중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79.5%에서 97.7%까지 상승

□ **유 럽**

○ **유럽에서의 그룹 매출, 6,004백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3.4% 감소**

- 반면 동유럽에서는 2.6% 증가한 514백만 유로 기록
- 영국 및 그리스에서의 Blue Circle 관련 업체들로 인해 시멘트 출하, 29.3% 증가한 32.3백만톤 기록
- 결과적으로 서유럽은 스페인에서의 강력한 성장을 바탕으로 39.0% 증가한 26백만톤을 기록(반면 독일에서는 급감)

-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곳곳에서의 증가 보다는 폴란드에서의 25% 출하 감소가 더욱 컸기 때문에 총 1% 감소한 6.2백만톤을 기록
- 유럽의 시멘트 매출은 41.5% 증가한 2,026백만 유로, 무역이익은 29.8% 상승한 606백만 유로 기록
- 가격상승은 특히 루마니아, 폴란드, 그리스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으나 가격은 대부분의 시장에 걸쳐 향상됨
- 서유럽에서의 골재 및 콘크리트 매출은 6.6% 향상된 1,770백만 유로였으며 매매이익은 16.1% 증가한 144백만 유로를 달성
 - 스페인에서의 강력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골재출하량은 1.6% 감소한 76백만톤 기록
 - 반면 프랑스 및 영국에서는 좋은 가격대와 제품으로 7% 증가한 759백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
- 레미콘 출하는 3.5% 증가한 14.6백만m³ 기록, 매출액은 약 6% 성장한 1,011백만 유로 달성
 - 스페인, 포르투갈에서의 강력한 성장 및 그리스에서의 강세로 프랑스 및 영국에서의 약세가 상쇄되었으며 가격상승도 동반됨

□ 북아메리카

- 지붕 관련 제휴사업을 제외한 북아메리카의 모든 Lafarge 업체들의 경영권 54.3%는 북아메리카 Lafarge 보유 중
 - 상기 회사의 2001년의 매출액은 19.2% 증가한 미화 3,323백만 달러
 - 골재사업 부문에서의 중요한 합병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
 - 매매이익은 미화 401.1백만달러로 6.8% 하락
 - 골재 및 콘크리트에서의 22.7% 향상이 1.3% 감소한 시멘트 부문의 수익과 급락한 석고보드 부문을 상쇄하지 못함
- Blue Circle 미국 공장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시멘트 출하는 분기에 16백만톤씩 증가
 - 매매이익은 14.3% 향상된 351백만 유로
 - 매출액은 25.4% 증가한 1,469백만 유로를 기록
 - 시멘트 가격 또한 상승하여 캐나다에서는 평균 3.6% 상승, 미국에서는 보험세를 유지하였으나 북미주 전체적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임
- 레미콘 출하는 24.4% 증가한 10.2백만m³을 기록, 한편 골재는 36.7% 증가한 116.1백만m³을 달성
- 석고부문은 석고보드 부문이 77%의 증가를 보였으나 가격이 하락하여 매출액은 단지 12.7% 상승한 169백만 유로 기록
 - 매매손실은 19백만 유로에서 79백만 유로로 상승

□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

○ 지역적인 매출액은 사실상 변함없이 760백만 유로에 달함

- 시멘트 부문

- 매출액, 10.1%까지 증가한 547백만 유로
- 시멘트 출하량은 10% 증가한 6.4백만톤 기록
- 매매이익은 18.5% 상승한 243백만 유로 기록
- 시멘트 가격은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임
- 브라질과 온두라스에서의 출하는 감소한 반면 베네주엘라 및 칠레에서는 증가함

- Lafarge는 브라질 레미콘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음

□ 아시아 - 태평양

○ 이 지역은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, 인도 등지의 Blue Circle 운영체들의 합병과 함께 지속적으로 중요한 성장을 해 왔음

○ 매출액은 46% 증가한 1,104백만 유로 기록

- 시멘트 부문 매출액은 753백만 유로를 달성, 75.1% 증가

- 출하량은 전년의 8.1백만톤과 비교하여 14.4백만톤을 기록
- 매매이익 또한 26백만 유로에서 64백만 유로로 상승
- 물량은 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증가하였고 한국에서는 가격 또한 상승세에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약세 유지
- 한라 지분의 40%를 갖고 있는 라파즈한라는 동양시멘트 주식 25%를 새로 취득

→ 한국에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1백만톤 기록

- 필리핀에서는 저수요로 고통을 받았으며, 인도에서는 물량 면에서의 성장이 있었으나 가격 면에서의 약세를 경험
- 지붕사업은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실적을 거둠
- 석고부문의 제휴사업은 한국에서 강력하게 성장하였고 Siam 석고의 경영권 획득

□ 근동 아시아 및 북 아프리카

- 매출액은 시멘트 부문에서 7.4% 증가한 550백만 유로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4.4% 감소한 637백만 유로를 기록
 - 시멘트 부문
 - 시멘트 출하량은 4.6% 향상된 11.4백만톤을 기록
 - 시멘트 매매이익은 9.6% 상승한 125백만 유로를 달성
 - 기존의 Blue Circle 운영체들은 25백만 유로의 매출액 달성
 - 모로코 및 요르단은 더 많은 물량으로 두 자리 수 향상
 - 이집트의 제휴업체인 타이탄의 매출액은 물량은 증대하였으나 가격은 하락한 결과 감소로 나타났음
 - 터키에서의 물량 및 가격은 모두 감소하여 매출액은 19% 하락 · 터키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추세는 그 곳의 레미콘 사업에 영향을 미침

□ 아프리카 기타 및 인도양

- 그룹 매출액은 45.7% 증가한 765백만 유로를 기록

→ 나이지리아 및 짐바브웨의 Blue Circle 관련 운영업체 및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제휴 업체들 이외에도 인도양 무역업체의 시멘트 매출액 증대에 기인

- 시멘트 부문

- 매출액은 72% 증가한 650백만 유로 기록
- 출하량은 44% 늘어난 7.2백만톤 달성
- 매매이익은 7.2백만 유로로 2000년의 2배 이상의 기록 달성
- 남아프리카에서의 가격상승은 타지역에서의 약세를 상쇄함
→ 남아프리카에서의 운영체들은 계속적으로 마진폭 향상

□ 전 망

- 2002년 1분기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3.6% 증가하였으며 시멘트 부문은 8.6% 증가

- 시멘트 출하의 강력한 성장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, 아시아, 동유럽에서 나타난 반면 지중해 연안국들은 10%의 출하감소

- 골재 및 콘크리트 부문의 출하는 다소 줄었으나 프랑스 및 영국에서의 좋은 가격 덕택에 매출액은 1.3% 증가

- Blue Circle 합병 거래에 따른 중요한 시너지 효과로 올해 및 내년의 시멘트 운영에서의 수익 전망은 긍정적
 - 새로운 시멘트 공장들은 중국에서 문을 열었으며 한국, 세르비아 그리고 슬로베니아에서 추가적인 공장 인수가 이루어짐

- 동유럽, 아시아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최대 성장이 전망됨
 - 중기적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및 근동 아시아지역이 신흥 시장으로 대두됨

- 유럽에서의 시멘트 이외에 골재 및 콘크리트, 지붕 사업체들은 약세가 전망되지만 북아메리카의 석고부문은 회복세가 전망됨

자료출처 : International Cement Review 8월호(2002)